

3/14(월) 사사기 15-18장 자멸한 사명자 삼손

사사기 안에는 짧은 분량의 소 사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

처음엔 한명(삼갈), 다음으로 2명(돌라, 야일) – 3명(입산, 엘론, 압돈)이 언급됩니다.

소 사사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놀란 가슴을 추스르는 구간입니다.

명수가 점점 느는 것은 폭력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

숨을 고르지 않고는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.

또 하나 눈에 띠는 것은 <여호와(하나님)의 사자>입니다.

구약에서 약 70회 정도 언급되는데 1/3이 사사기에 나옵니다.

사자는 보김에서, 또한 기드온에게,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.

이는 최악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.

그나마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
성경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*송병현, 사사기

은혜와 섭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셨으나

늘 이방 여인에게(우상) 눈과 몸과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.

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.

고통이 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금 새 잊어버립니다.

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.

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<사사>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.

이스라엘의 죄 만큼이나 이방인의 압제는 장기화되고 혹독해지지만(40년),

백성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. <부르짖음>없이 순응하며 살아갑니다.

삼손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군사적 행동,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(14:1,7-8,16:1).

오히려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심거리 취급을 당합니다(15:11).

삼손은 자기 정욕과 복수심으로 살인을 행하며 자멸하게 됩니다.

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선 삼손은 겨우 사사로서 이름값을 합니다(16:28).

“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(16:30).”

나는 사명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?

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공동체의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?

❷ 마음껏 쓰임 받고 있습니까, 겨우 이름값만 하는 정도입니까?